

韓國의 大學과 國際的 寄與

오늘날 우리 사회의 開放化·國際化 추세와 더불어 大學教育의 여건도 크게 변모해 가고 있다. 그동안 우리의 지속적인 經濟力 伸張은 활발한 國際交流의 추진과 해외진출을 확대, 多樣化시키고 있다. 여기서 “우리들은 世界로부터 기대를 받고, 신뢰와 존경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命題를 學校教育의 根本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오늘날 韓國이 國際社會에서 존경받는 이유 중 하나는 經濟的 측면에서 경이적인 성공을 이룬 데 있다. 예컨대 우리와 가까운 亞·太 지역의 몇 개 나라, 즉 韓國戰爭에 참전한 태국·필리핀·호주·뉴질랜드뿐만 아니라 전후 휴전감시단의 일원으로 와 있었던 인도 단원들이 본 韓國은 거지때가 득실거리는 비참하기 이를 데 없는 참상 바로 그것이었다. 그런데 韓國은 그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發展한 國家라는 사실을 1980년대에 내가 유네스코 亞·太 지역 敎育處에 근무하면서 확실히 알았다. 그들 나라의 여러 사람들은 그 당시 最貧國 韓國이 어떻게 저렇게 발전하고 있는가 하는 의아심어린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게다가 자기네 國家는 지난 날 20~30년 동안 그 많은 문화 유적과 훌륭한 전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가 하는 自省과 怨聲이 높다고 하였다. 자신들의 나라가 韓國과 같이 發展되지 못하는 원인은 企業의 본연의 모습이나 人間關係, 敎育의 效果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의구심을 품고 있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이 현재 敎科란에는 어느 곳에도 실려 있지 않고, 學習指導要領까지도 왜곡·악화되고 있으며, 反對方向으로 가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國際化時代에 어울리는 學校教育이 어떠한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人材養成의 중심은 學校教育이며 그 마무리는 大學의 힘으로 完成된다. 그리고 大學教育의 효과는 그 나라 발전의 神話를 낳게 한다. 우리가 당면한 國際化時代는 한 나라의 운명이 다른 나라의 운명을 支配하는, 또는 支配할 수 있는 시대를 말한다. 즉, 세계 각국의 상호의존도가 대단히 높은 시대를 뜻한다. 韓國은 많은 나라로부터 식량·資源·에너지 등을 수입할 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 신발류, 섬유 및 電子工業製品 등을 수출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國家間的 상호의존도가 날로 높아가고 있다.



金鳥工大 學長 白 賢 基

이러한 國家間 상호의존도가 점차로 높아가는 國際化 시대에 韓國大學이 국제사회의 '아웃사이더'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앞서 말한 아시아 각국 또는 地球村의 다른 여러 나라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 나라의 實像을 올바르게 認識할 수 있도록 大學을 포함한 學校教育에서 體系적으로 길러가는 努力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물론 廣大한 아시아와 世界의 모든 것이 장미색의 풍요로움을 形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한편으로는 '成長의 나라'가 있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沈滯의 나라'가 인접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한 나라에서도 '豊饒한 부문'과 '貧困한 부문'이 併存하고 있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러한 現實을 우리는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지금부터 아시아 및 世界 여러 나라와 韓國과의 관계는 望遠鏡의 양 '사이드'에서 서로를 들여다 보는 것과 같이 생각하여서는 안 된다. 아시아나 世界에서 韓國을 보면 한국은 極大化해서 보이는 巨人이지만, 역으로 아시아나 世界를 보면 廣大한 아시아나 世界는 '거자씨'와 같이 작게 보이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면 兩者는 서로의 虛像을 보고 있는 것과 같이 된다. 韓國이 先進國이 되기 위해서는 實像으로서의 아시아와 世界를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韓國大學이 國際社會에 이바지하는 大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大學이 갖고 있는 閉鎖主義를 극복하고 大學間의 지나친 競爭意識을 協동정신으로 전환하는 동시에, 大學間에 쌓여 있는 不信風潮를 타파하여야 한다. 나아가 國際交流를 活性化시킬 수 있는 專門人力의 개발과 우리의 전문인력이 리비아, 말레이시아, 네팔 등지에서 韓國의 神話들을 창조한 것과 같이 國際社會에서도 이러한 神話を 창조해 나가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21 세기를 눈앞에 두고 있는 현재 우리는 실로 世界는 넓고 할 일이 많은 時代에 살고 있음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가운데 現代의 感覺과 秀越性, 그리고 그 成熟度を 유지하면서 우리나라 大學이 국제사회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로부터 受容할 수 있는 것은 수용하고, 寄與할 수 있는 것은 기여하는 雙務的 交換段階, 새로운 文化의 創造段階까지 뻗어 나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